

光日春秋



김용택 시인

아침 일찍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30분 걷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을까 하다가 어제 읽었던 단편 소설을 다시 한번 읽기로 했다. 어제 읽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책 줄거리가 드문드문해서 다시 읽었다.

소설을 읽기 시작할 때 창밖에서 새가 울었다. 처음 울음을 시작할 때는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높은 음으로 올라가다가 아주 높은 음에서는 일정한 음으로 울다 그치고 울다 쉬며 반복해서 울었다. 높은 음으로 길게 울 때는 슬프기도 했다. 책을 읽다가 책 내용 속으로 새소리가 찾아들면 내용을 놓치곤 했다. 줄거리가 잘 이어지지 않을 때는 줄거리가 끊긴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 줄거리를 이었다. 도대체 어떤 새가 저리 예쁜 소리를 낼까, 궁금해서 책을 들고 창가로 가서 여기 저기 뒷산 뽕나무 숲속을 찾았지만, 새 우는 소리는 또렷한데, 새는 찾지 못했다.

책을 다 읽고 아침밥을 대신해서 먹는 누룽지를 끓이고, 쌀을 씻어 밥하고, 집 뒤 안 살구 두 개를 따 씻어 먹었는데, 익지 않아 떼떠름한 맛이 입안 가득 찼다. 냇비

잘 지나간 시인의 하루

에 누룽지가 자글자글 물 끓어오르는 소리를 냈다. 열른 달래가 식혀서 먹었다. 그사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새는 그치지 않고 울었다. 부엌문을 살피서 열고 서서 뒷산 커다란 느티나무에서 새를 찾아보았다. 그때 새 울음소리가 문득 그쳤다. 문 여는 소리 때문인가, 가만히 서 있었다. 새가 울지 않았다. 저 세상에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설거지하는데, 이번에는 까마귀 울음소리 물까지 울음소리가 하도 요란해서 다른 쪽 문을 열고 나가 보았다. 까마귀가 전기줄에 까맣게 앉아 있었다. 그 주위를 맴돌며 물까지와 꼬리들이 까마귀를 공격하고 있었다. 물까지와 꼬리들의 집중 공격과 까마귀의 필사적인 방어를 겸한 공격은 격렬했다. 까마귀 한 마리에 꼬리들이 세 마리, 물까지 대어서 마리였다. 싸움은 길고, 공방전은 치열했다. 새들이 공격하는 동안에도 까마귀는 전기줄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새들의 공격이 더 치열해지자 견디지 못한 까마귀가 진지인 전기줄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새들은 합성을 지르며 까마귀를 쫓았다. 푸른 하늘에 새들의 공중전은 볼만했다. 까마귀는 회문산 멀리 사라지고 꼬리리와 물까지의 마을로 귀환해서 흠뻑 젖었다. 싸움이 끝났다. 한숨 돌린 나는 땀의 방류로 붙어난 큰 강물을 뒷집지고 서서 구경하였다. 큰물일수록 소리를 감추고 묵묵하게 흐른다.

오후에는 새로 나온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소설집을 읽었다. 두어 편은 어느 잡지에서 읽은 글이

만다시 읽었다. 본 영화를 다시 볼 때처럼 기억나지 않은 새로운 장면들 때문에 글은 새로 읽었다. 김애란의 소설집을 다 읽고 '문자'의 '소설보다 봄' 속의 성해나의 단편 '스무'를 읽었다. 선이 굵직굵직하고 이야기가 힘차게 뻗어 나갔다. 글밥이 흐르는 강물처럼 출렁이고 꿈틀거린다. 밥 먹기 전에 읽은 단편은 김지연의 '무덤을 보살 피다'였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었다. 벌써 띄어벌이다. 올 날씨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더울 때는 주로 소설을 읽는다. 책을 읽을수록 읽을 책이 자주 새로 나타난다. 그것은 거 같다. 남 탓 책을 읽을 힘과 글을 쓸 힘이 내게 비축된 긴장을 느낀다.

대통령은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며 나랏일을 하고, 자주 웃고, 아무 밥집이나 들어가 편하게 밥 잘 드시고, 국회에서 선배님을 만나 약속하며 여게도 록 친다. 별로 웃기지는 않지만, 빼어난 농담도 해서 대통령 본인도 속편하게 웃고 착한 우리 국민 맘 편하게 해서 좋은 거 같다. 남 탓 별로 안 하고, 나라 일하면서 큰소리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하지 않고도 공무를 보는 이들을 은근히 긴장시킨다.

취임한 지 한 달 되었는데, 오래된 대통령처럼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도 같다. 크게 속상한 일들도 큰 소리 나지 않게 순리대로 잘 풀리길 바란다. 내버려 두어도 시간이 흐르면 일이 저절로 해결되게 하는 정치의 기술도 있다. 나는 오늘 우리나라 시인으로 우리 마을과 함께 하루해가 잘 넘어갔다.

종교칼럼

'영적 미식가'로 거듭나기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리라 여겨진다. 예수님의 생선과 떡으로 준비한 아침 식탁을 볼 때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무엇인가가 가득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상태로만 상상했던 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보면 어떨까 싶다. 끊임없이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많이 먹어 배부른 것과 진정으로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며 깊은 만족를 얻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영적인 '배부름'과 '진정한 만족' 사이의 간극을 너무 쉽게 간과하며 살아간다. 성경말씀 많이 읽기, 기도 오래 하기, 되도록 많은 예배나 집회 참석하기 등 신앙 활동의 양적 지표만을 쫓다 보면 정작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깊은 맛과 만족를 놓치지 쉽상이다.

넷플릭스 인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는 단순히 양이 많은 것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깊은 맛을 가진 요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미식의 세계는 푸짐한 양보다는 질적으로 맛있는 것에 대한 평가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우리는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을 넘어 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음미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중요하다. 또한 기도의 양반을 채우기보다 성령님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인재를 경험하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진정한 만족를 가져다준다. 예배의 현장에서도

단순히 의무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맞고 그분과 온전히 연결되는 질적인 경험을 추구해야 한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목마르다면 이러한 영적인 기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회복할 수 있다. 이는 뷔페식으로 이것저것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필요로 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 헤매는 미식가의 모습과 같다. 이러한 갈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이끌고 피상적인 만족이 아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나라 오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가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 여정이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양적인 '배부름'을 넘어 질적인 '만족'과 '맛'을 추구해야 한다. 때로는 비용과 절제거리 큰 충만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일시적인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 한정식처럼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진 풍성함의 만족도 있겠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양은 비록 적지만 정갈하고 미와 맛을 중시하는 파인 다이닝이 있다. 유명 셰프가 음식을 준비하며 핏색으로 정밀하게 요리를 마무리 하는 것을 보면 감탄이 나온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만족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넘치고 풍성한 은혜는 광주형 대입상담프로그램 '빛고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맛있는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가 말이다. 예수님의 조반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주께 사랑으로 준비한 것들을 경험하는 영적 미식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기고

다양한 실력으로 '광주 진학의 꽃' 피운다



정용희 광주진학부장협의회 부회장 광주 경신여고 진학부장

가채점부터 실채점까지 분석하고 결과를 각 학교 진학부장들에게 전달하는 등 학생들이 수능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학생을 단순히 성적의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탐색하고 성장하도록 모든 고등학교에 '대입전문디렉터'를 배치했으며 7월에는 시교육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광주진로진학박람회'를 연다. 이곳에서는 평소 대면하기 어려운 대학입학사정관들을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하나 둘 결실로 쌓이고 있다. 광주지역 학생들의 최근 3년 국어, 영어 수능 등급 분포를 보면 상위 등급(1, 2등급)의 비율은 늘어나고, 하위 등급(8, 9등급) 비율은 줄었다. 다만 수학은 변동폭이 커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수포자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등 수학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광주 성적에 대해 전국 대비 학교 간 표준점수 평균 차이가 최소라고 했는데 학교 교육력의 평준화 및 균질성을 갖추었다는 말이다. 또한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의견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의·치·약학 계열 및 서울권 대학 진학률과 지역거점대학 진학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하위권 학생들의 합격률도 높아지고 있어 더욱 고무적이다. 학부모들의 입시 궁금증을 공교육의 힘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매년 '광주

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빛고을 꿈트리 진로진학상담' SNS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교사가 변해야 학생이 변화한다는 신념 아래 진로진학 전문 역량을 키우고자 교사 연수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매월 '교육청-대학 연계 대입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초에는 광주형 대입상담프로그램 '빛고을 심혈을 기울여'를 활용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 연수 등은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워겠다는 선생님들로 매년 복재통을 이룬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정책에 호응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보여주기용 요식행위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으로 불안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 중심, 다양성 존중,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을 발판 삼아 댄다면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다. 학생들의 옆에는 늘 지지해주는 부모님, 친구, 그리고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광주교육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찬 것이 분명하다.

社說

지역 균형발전 의지 보인 대통령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어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 취임 10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하던 전례에 비해 빠른 것인데 인수위 과정도 없이 취임한 새 정부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그만큼 국민과 약속한 소통을 실천한 것이자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것이다.

기자회견 방식도 이전과는 달리 지방 언론이나 시군단위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매체까지 배려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 타운홀 미팅 방식의 집단 토론에서 이미 대통령의 현안 파악 능력을 확인했듯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국정 현안을 꿰뚫고 있는 점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지역 언론 입장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소적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수도권 집중화를 거론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가 예산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 영향 지수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에서 필수 소득 소멸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가중치를 두겠다는 것인데 획기적인 정책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군2 추진과 지방을 권역별로 키우는 '5극 3특 체제'도 지역을 살리는 정책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취임 한 달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합력점을 받은 만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반값고 기대감을 키우는 것은 지방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자근자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현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정부 설득으로 광주 AI 중심도시 실현해야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은 인공지능(AI)이다. AI 중심도시를 표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구 첨단3지구에 AI중심 산업 집적단지가 조성돼 있고 국가시데이터센터가 이미 가동중이다. 광주시는 이곳에 초거대 국가시컴퓨팅센터를 건립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 AI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정부를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타운홀 미팅 이후 광주시는 정부 설득에 공을 들였다. 미팅 다음 날 곧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I 관련 산업 현황을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광주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관련 연구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다.

연구용역비인 만큼 금액은 적지만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광주시에만 정부를 설득할 충분한 자료가 있다. 올해 AI국가데이터센터 이용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 경쟁률이 2.7대 1에 달하고 지난 4년 동안 AI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지원한 사업이 1946개이며 611건의 논문을 데이터화했다는 것이 그것들이다.

'준비가 덜 됐다'는 비판을 받은 타운홀 미팅의 충격이 크지만 미팅 하루 전ैया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아 급히 준비한 광주시 공직자들의 사정을 아는 만큼 이해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도 정부와 대통령 설득에 최선을 다해 AI 중심도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無等鼓

앉아만 있어도 숨이 탁탁 막히는 여름이다.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야구장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지난 2일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전국 5개 구장에 7만 6723명이 입장하면서 올 시즌 누적 관중 수가 700만 7765명이 됐다.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기록한 첫 700만 관중이다.

KIA와 SSG의 경기가 펼쳐진 챔피언스필드에도 폭염특보를 뚫고 1만1827명이 입장했다. '괴물 좌판' SSG 김광현과 3년 차에 프로 데뷔전을 치른 KIA 이도현이 맞붙으면서 일방적인 흐름의 경기가 펼쳐지는 것 같았지만 팬들은 기뻐했고 광주FC 선

수들까지 그의 뜻에 동참하면서 지난 30일 모금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KIA도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다. 5대 8까지 추격을 한 KIA는 9회 1사 만루를 만들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결과는 아쉬운 패배였지만 팬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더위에도 많은 팬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고 응원을 했다. KIA도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다. 5대 8까지 추격을 한 KIA는 9회 1사 만루를 만들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결과는 아쉬운 패배였지만 팬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더위도 막지 못하는 팬들의 열정에 선수들도 그냥 쉽게 물러날 수 없다고 말한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노라조 조빈은 최근에는 '광주FC의 흥보대사'로

수들까지 그의 뜻에 동참하면서 지난 30일 모금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KIA도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다. 5대 8까지 추격을 한 KIA는 9회 1사 만루를 만들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결과는 아쉬운 패배였지만 팬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더위도 막지 못하는 팬들의 열정에 선수들도 그냥 쉽게 물러날 수 없다고 말한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노라조 조빈은 최근에는 '광주FC의 흥보대사'로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